

제 106 회

#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

(문제지)

※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

급수	사범급	유형	A형	수험번호		-		-		-		
문항수	200	객	50	성명								
		주	150									
시험시간	120분											

## 수험생 유의 사항

-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답안지에 문제유형(A, B)를 <예시>와 같이 표기하십시오.
- 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.
-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주·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수정방법:
  -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.
  -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.
-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,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.
-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(객관식과 주관식 구분)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.
-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,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.
-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.
-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&lt;예시&gt;

문제유형	
A형	●
B형	○

■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

공인민간자격관리 · 운영기관



社団法人 漢字教育振興會

韓國漢字實力評價院

# 제106회 한자실력급수 [ 사범급 ] 문제지

## 객관식 (1~50번)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?

1. [ 匯 ] ① 崑 ② 窩 ③ 樽 ④ 蛔
2. [ 禪 ] ① 錕 ② 裙 ③ 琿 ④ 焘
3. [ 毅 ] ① 鈞 ② 蝻 ③ 鎰 ④ 肄
4. [ 滄 ] ① 唵 ② 鈐 ③ 淹 ④ 歆
5. [ 怕 ] ① 葩 ② 鉑 ③ 毫 ④ 廈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?

6. [ 梳 ] ① 瘙 ② 銷 ③ 髻 ④ 艘
7. [ 莘 ] ① 宸 ② 振 ③ 蓋 ④ 矧
8. [ 廐 ] ① 煦 ② 衢 ③ 裘 ④ 韭
9. [ 悝 ] ① 翅 ② 著 ③ 豺 ④ 耆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?

10. [ 驟 ] ① 騙 ② 馱 ③ 馳 ④ 驄
11. [ 啼 ] ① 嚙 ② 囀 ③ 呱 ④ 呖
12. [ 儻 ] ① 伋 ② 俟 ③ 伺 ④ 倜
13. [ 滓 ] ① 渣 ② 澧 ③ 瀘 ④ 潞

※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?

14. ① 顛 ② 顛 ③ 碩 ④ 顛
15. ① 攻 ② 攷 ③ 改 ④ 攸

※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16. ① 安謐 : 안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摺紙 : 습지  
③ 軺軒 : 초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雙眸 : 쌍모
17. ① 鞦韆 : 추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涅槃 : 열반  
③ 剿討 : 소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昂騰 : 양등
18. ① 糯黍 : 유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緡錢 : 민전  
③ 腋窩 : 액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茄菹 : 가저
19. ① 瀛海 : 영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船舷 : 선현  
③ 兒孩 : 아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芒鞋 : 망화
20. ① 菟絲 : 면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楯形 : 순형  
③ 角槌 : 각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瓠犀 : 호서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?

21. 어진 이를 [ 참조 ]하는 간신의 무리가 득세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.  
① 讖訴 ② 懺訴 ③ 讒訴 ④ 僭訴
22. 어민들은 [ 녹조류 ]로 인해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.  
① 菽藻類 ② 綠藻類 ③ 綠潮類 ④ 菽潮類
23.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이미 [ 어문 ]한 후이니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.  
① 飫聞 ② 瘵聞 ③ 齟聞 ④ 囿聞
24. 범인은 [ 화염병 ]과 불발한 포탄도 갖고 있었다.  
① 火剌瓶 ② 火焰鉗 ③ 火剌鉗 ④ 火焰瓶
25.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[ 우제류 ] 축산 농장에 출입을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다.  
① 偶蹄類 ② 憂除類 ③ 憂蹄類 ④ 偶除類
26. 그는 [ 박눌 ]하나 강직하여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.  
① 迫訥 ② 撲訥 ③ 朴訥 ④ 拍訥
27. 그 교회는 낡고 [ 후락 ]한 교회지만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.  
① 逅落 ② 嗅落 ③ 喉落 ④ 朽落

※ [       ]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
28. [       ](이)나 염장을 한 식품은 잘 부패되지 않아 어느 계절에나 먹을 수 있다.  
① 醱酵 ② 羹楛 ③ 陶醉 ④ 獐狷
29. 이 책에는 그의 평소 생각이 자세하게 [       ]되어 있다.  
① 怪癖 ② 披瀝 ③ 巫蠱 ④ 牡蠣
30. 그들은 가난의 [       ](으)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.  
① 螭魅 ② 桎梏 ③ 瞻賑 ④ 綽楔
31. 사이버 종교가 전염병처럼 [       ]하고 있다.  
① 玉屑 ② 猖獗 ③ 渥丹 ④ 烝溜
32. 그를 만나러 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기가 [       ]와/과 같았다.  
① 僵仆 ② 學寮 ③ 柳絮 ④ 鹵獲
33. [       ]이가 밴 마스크를 버리고 새것을 썼다.  
① 喀痰 ② 長衫 ③ 大腿 ④ 間歇

34. 한창 번성했던 이 거리가 점점 예전의 모습을 잃고 [ ]되어 가고 있다.

- ① 末梢 ② 賣糕 ③ 初梢 ④ 褪色

※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?

35. 도량이 넓고 큼. 활발하고 의젓함.

- ① 早穰 ② 豁達 ③ 完帙 ④ 史繹

36. 빈정거리며 웃음.

- ① 養漱 ② 參詣 ③ 仕樣 ④ 嗤笑

37. 오래 삶과 일찍 죽음.

- ① 統括 ② 疲斃 ③ 彭殤 ④ 推鞠

38. 사토장이가 관 자리를 파고 다듬을 때에 신는, 베로 만든 버선.

- ① 布襪 ② 職銜 ③ 酒肴 ④ 總攬

39.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남.

- ① 操舵 ② 洶湧 ③ 傷悴 ④ 象嵌

40. 변방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던 곳.

- ① 藩鎮 ② 麥藁 ③ 露臀 ④ 納贖

41. 족자나 책, 서화첩 따위를 꾸미어 만드는 일.

- ① 胸臆 ② 煙筒 ③ 束脩 ④ 裝潢

※ [ ]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?

42. [ 靑孀寡守 ]

- 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.  
 ②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된 여자.  
 ③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키.  
 ④ 객지에서 아주 외롭고 적막한 나그네의 종적.

43. [ 蝸牛角上 ]

- ① 세상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 
 ② 하찮은 일로 별이는 싸움.  
 ③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.  
 ④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.

44. [ 博覽強記 ]

- ① 여러 가지의 책을 널리 많이 읽고 기억을 잘함.  
 ② 널리 알지만 정밀하지는 못함.  
 ③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함.  
 ④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에 밝고 예절을 잘 지키.

45. [ 萬籟俱寂 ]

- ①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.  
 ② 도를 깨달아 의혹이 일시에 없어짐.  
 ③ 밤이 깊어 아무 소리 없이 아주 고요해짐.  
 ④ 물이 거침없이 흐르듯 잘하는 말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桓公讀書於堂上이러니 輪扁斲輪於堂下  
 일새 釋椎鑿而上하여 問桓公曰 敢問  
 公之所讀者何言邪오 公曰 聖人<sup>㉠</sup>之言  
 也라 曰 聖人在乎아 公曰 已死矣라 曰  
 然則君<sup>㉡</sup>之所讀者는 故人<sup>㉢</sup>之糟魄已夫  
 인저 桓公曰 寡人讀書에 輪人安得議乎아  
 有說則可<sup>㉣</sup>커니와 無說則死하리라 輪扁曰  
 臣也 以臣<sup>㉤</sup>之事로 觀之<sup>㉥</sup>컨대 斲輪 徐則  
 甘而不固하고 疾則苦而不入하니 不  
 徐不疾하여 得之於手而應於心이요 口不  
 能言하여 有<sup>㉦</sup>數存焉於其間이니이다 臣不  
 能以喻臣之子요 臣之子亦不能受之於  
 臣이라 是以<sup>㉧</sup>行年七十而老斲輪이니이다  
 古之人<sup>㉨</sup>與其不可傳也死矣라 然則君  
 之所讀者는 故人之糟魄已夫인저  
 《莊子》

46. 밑줄 친 ㉠~㉨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?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㉤

47. 문맥상 밑줄 친 ㉠과 ㉡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㉠; 느슨하다, ㉡; 견고하다  
 ② ㉠; 험겁다, ㉡; 견고하다  
 ③ ㉠; 험겁다, ㉡; 뻑뻑하다  
 ④ ㉠; 딱 끼다, ㉡; 뻑뻑하다

48. 문맥상 밑줄 친 ㉢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촘촘함 ② 자주 ③ 많음 ④ 기술

49. 문맥상 밑줄 친 ㉣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행동 ② 나이 ③ 향렬 ④ 경험

50. 문맥상 밑줄 친 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함께 ② 주다 ③ 같다 ④ 돕다

**주관식 I (주1~주100번)**

■ [주관식 I]의 답은 [OCR답안지]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.

- 주1. 砵 ( )
- 주2. 寨 ( )
- 주3. 抹 ( )
- 주4. 宛 ( )
- 주5. 擢 ( )
- 주6. 絆 ( )
- 주7. 覈 ( )
- 주8. 响 ( )
- 주9. 悸 ( )
- 주10. 盎 ( )
- 주11. 縉 ( )
- 주12. 稍 ( )
- 주13. 鏊 ( )
- 주14. 玕 ( )
- 주15. 癰 ( )
- 주16. 篲 ( )
- 주17. 悄 ( )
- 주18. 懊 ( )
- 주19. 雯 ( )
- 주20. 邨 ( )
- 주21. 炯 ( )
- 주22. 貶 ( )

※ 한자의 부수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23. 壻 ( )
- 주24. 𪗇 ( )
- 주25. 匏 ( )
- 주26. 采 ( )

※ 훈과 음에 맞는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27. 감을 찰 ( )
- 주28. 돛바늘 술 ( )
- 주29. 권할 종 ( )
- 주30. 맛볼 채 ( )
- 주31. 물억새 적 ( )
- 주32. 담제 담 ( )

- 주33. 편지 독 ( )
- 주34. 비녀 전 ( )
- 주35. 뜰 읍 ( )
- 주36. 위성류 정 ( )

※ ○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쓰시오.

<보기>	炬 撮 偈 擗 瘠 津 粢 唄
------	-----------------

- 주37. 松○ ○燭 植○ ( )
- 주38. 寶○ ○頌 梵○ ( )
- 주39. ○盛 祭○ ○米僧 ( )
- 주40. ○印 ○影 ○本 ( )

※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.

- 주41. 砦堡 ( )
- 주42. 銳嘴 ( )
- 주43. 蠹簡 ( )
- 주44. 翳屬 ( )
- 주45. 執贄 ( )
- 주46. 鈎勒 ( )
- 주47. 蟬鬢 ( )
- 주48. 萬朶 ( )
- 주49. 衒耀 ( )
- 주50. 禘嘗 ( )
- 주51. 餘燼 ( )
- 주52. 孱羸 ( )
- 주53. 豕喙 ( )
- 주54. 荔枝 ( )
- 주55. 蕊宮 ( )
- 주56. 蟋蟀 ( )

※ [ ]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.

- 주57. 여야의 국회 [파행]은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. ( )
- 주58. 새끼 거북이의 [파행]하는 모습은 몹시 귀엽다. ( )
- 주59. 그 선수는 국위 [선양]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높였다. ( )
- 주60. 한글날을 제정하여 민족 문화의 [선양]에 이바지하였다. ( )

※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. (단,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)

- 주61. 오랜 戰爭은 國民들을 牝死地境에 빠트린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2. 景氣 葳縮으로 株式 去來量이 크게 줄었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3. 勞組의 指導部는 輟夜 籠城에 들어갔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4. 沈澌된 霧圍氣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大幅的 人事異動이 不可避했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5. 할아버지는 氣管支 葳息이 심해서 기침을 하느라 밤잠을 설치신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
※ 풀이에 맞게 [            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66. [요화]: 화에 권 불. 햇불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7. [서열]: 서자 열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8. [진섭]: 모두 망함. 또는 무찔러서 모두 없애 버림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9. [견잠]: 고치를 지은 누에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0. [궁홀]: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1. [인멸]: 자취도 없이 모두 없어짐. 또는 그렇게 없앴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2. [반흔]: 상처나 부스럼 따위가 다 나은 뒤에 남은 자국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3. [건각]: 한쪽 다리가 짧거나 탈이 나서 뒤뚱뒤뚱 저는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4. [교반]: 휘저어 섞음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5. [위집]: 고슴도치의 털같이 사물이 한꺼번에 번잡하게 모여듦을 이르는 말. (            )

※ 문장 속 [            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76. 그 자동차는 10기통 엔진을 [탑재]하고 있어 성능이 좋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7. 이웃집 아저씨는 성미가 [강팍]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주 싸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8. 그의 발표에 핵심 내용은 없고 [贅사]가 너무 길어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9. 고인의 [빈소]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0. 구슬 같은 눈물이 그녀의 검은 [첩모]를 적셨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1. 평소 구두쇠로 소문난 그가 남몰래 고아원에 거금을 [쾌척]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2. 많은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 [도태]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살고 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3. 아이들은 [나선형]으로 생긴 미끄럼틀을 신나게 돌아내렸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4. 백성이 굶주리자 왕은 각 관청의 [창름]을 열어 구휼하였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5. 그녀는 [조울증]이 심해져 당분간 휴직하기로 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6. 응접실에는 묵향이 그윽한 [족자]가 걸려 있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7. 침대의 [용수철]이 녹슬었는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8.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은 [삼투압]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9. 평소에 [표독]스럽던 그녀가 오늘은 전에 없이 다정한 모습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90. 어머니가 [전복죽]을 끓여 주셨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
※ [ ]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○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91. [螳○拒轍]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,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 )
- 주92. [走○落兔] 노루를 쫓다가 생각지도 아니한 토끼가 걸려들었다는 뜻으로, 뜻밖의 이익이 생김을 이르는 말. ( )
- 주93. [龍蟠虎○]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웅장한 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 )
- 주94. [秉○之性] 타고난 천성. ( )
- 주95. [吮○舐痔] 종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 앓는 밑을 핥는다는 뜻으로, 남에게 지나치게 아첨함을 이르는 말. ( )
- 주96. [臥龍鳳○] 누운 용과 봉황의 새끼라는 뜻으로,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해 이르는 말 ( )
- 주97. [繁文○禮]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. ( )
- 주98. [風飛○散]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. ( )
- 주99. [輻輳并○] 수레의 바퀴통에 바퀴살이 모이듯 한다는 뜻으로, 한곳으로 많이 몰려 들을 이르는 말. ( )
- 주100.[○然開悟] 모르던 일을 갑자기 깨달음. ( )

**주관식 II (주101~주150번)**

■ [주관식III]의 답은 별도의 [주관식 II 답안지]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[ ]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‘O’, 적절하지 않으면 ‘X’로 표기하시오.

- 주101. 어머니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[鳧趨雀躍]하셨다. ( )
- 주102. 하늘을 뒤덮은 [萬丈紅塵] 속의 싸움터에서는 총성만이 들려왔다. ( )
- 주103. 자식은 항상 [菽水之供]의 효도를 다해야 한다. ( )

- 주104. 그 임금이 사납고 포악한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은 [桃夭時節]의 괴로움에서 허덕이고 있었다. ( )

※ [ ]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105. 그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거칠어서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니, 마치 [산에 사는 꿩과 들오리]와 다를 바가 없다. ( )
- 주106.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[우물의 바닥에 있는 개구리]와 같이 될지도 모른다. ( )
- 주107. 그는 자신이 들은 말을 [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말해] 소문을 퍼뜨려 비밀이 없다. ( )
- 주108. 그의 작품은 [모래톱에 내려앉은 기러기]처럼 매우 훌륭했다. ( )

※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.

- 주109. 蕭牆之變 ( )
- 주110. 畫龍點睛 ( )
- 주111. 賽神萬明 ( )
- 주112. 犬齧枯骨 ( )

※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.

- 주113. 三尺髯 食令監 ( )
- 주114. 輕彼薄楮 尙對舉 ( )
- 주115. 晝語雀聽 夜語鼠聽 ( )
- 주116. 始用升授 還以斗容 ( 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若且雖猶所而乎於皆無以奚矣

주117.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○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○格 《論語》  
( , )

주118.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○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○以爲 《論語》  
( , )

주119. 宜兄宜弟○后 可○教國人 《大學》  
( , )

주120. 上善○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○惡 故幾於道 《老子》  
( , 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覆繩容道墨靡沈就無良鮮待財

주121. 詩曰 ○不有初 ○克有終 《小學》  
( , )

주122. 木受○則直 金○礪則利 《荀子》  
( , )

주123. 婚娶而論○ 夷虜之○也 《明心寶鑑》  
( , )

주124. 舟○乃見善游 馬奔乃見○御 《淮南子》  
( , )

※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[ ]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.

주125. [賢 肖 事 不 不 而 肯] 是人之三不祥也 《小學》  
국역: 어질지 못하면서 어진 이 섬기기를 싫어함이 바로 사람의 세 가지 불길한 것이다.  
( , )

주126. 夫賢士之處世也 [ 錐 處 之 中 若 囊 譬 ] 《史記》  
국역: 무릇 어진 선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송곳이 자루 안에 있는 것과 같다.  
( , )

주127. [ 中 不 言 如 數 守 多 窮 ] 《老子》  
국역: 말을 많이 하면 자주 궁해지니 중도를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하니라.  
( , )

주128. [ 初 終 宜 誠 慎 美 令 篤 ] 《千字文》  
국역: 처음을 독실하게 함이 진실로 아름답고 마침을 삼가는 것이 마땅히 좋다.  
( , )

※ [ ] 부분을 국역하시오.

주129. 禮與其奢也 寧儉 [ 喪與其易也 寧戚 ] 《論語》  
( )

주130. [ 民欲與之偕亡 ]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《孟子》  
( )

주131. 心安茅屋穩 [ 性定菜羹香 ] 《明心寶鑑》  
(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<山中問答> -李白  
問余(㉠)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 
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

(나) <閨情> -李玉峯  
有約來(㉡)晚 庭梅欲謝時  
忽聞枝上鵲 ㉢虛畫鏡中眉

(다) <農家歎> -鄭來僑  
白骨之徵(㉣)慘毒 ㉤同鄰一族橫罹厄  
㉥판달朝暮嚴科督 前村走匿後村哭  
鷄狗賣盡償不足 悍吏索錢錢(㉦)得  
父子兄弟不相保 皮骨半死就凍獄

주132. ㉠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(正字)를 쓰시오. ( )

주133. 시 (가)의 주제를 쓰시오. ( )

주134. ㉡과 같이 행동을 하는 원인과 이유를 간략히 쓰시오. ( )

주135. 시 (나)의 형식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36. ㉢을 국역하시오. ( )

주137. ㉤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38. 시 (다)의 주제와 의미가 통하는 성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壬戌之秋七月既望<sup>㉔</sup>에 蘇子與客으로 泛舟하여 遊於(㉑)之下하니 淸風은 徐來하고 水波는 不興이라 ㉒거주촉객하여 誦明月之詩하고 歌<sup>㉓</sup>요조之章이러니 少焉에 月出於東山之上하여 ㉔徘徊於斗牛之間이라 白露는 橫江하고 水光은 接天이라 縱一葦之所如하여 凌萬頃之茫然하니 浩浩乎如憑虛御風而不知其所止하고 飄飄乎如遺世獨立하여 羽化而登仙이라 於是에 飲酒樂甚하여 扣舷而歌之하니 歌曰 桂棹兮蘭槳으로 ㉕擊空明兮泝流光이로다 渺渺兮余懷여 ㉖望美人兮天一方이로다

《古文眞寶》

주139. ㉑에 들어갈 2음절 한자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40. ㉒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41. ㉓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42. ㉔을 국역하시오. ( )

주143. ㉕을 국역하시오. ( )

주144. 문맥상 ㉔와 ㉕의 뜻을 쓰시오. (㉔: , ㉕: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夫天地者는 萬物之㉑역려요 光陰者는 百代之過客이라 而浮生若夢하니 爲歡幾何오 ㉒古人秉燭夜遊는 良有以也로다 ㉓況陽春은 召我以煙景하고 大塊는 假我以文章이라 會桃李之芳園하여 序天倫之樂事하니 群季俊秀는 皆爲惠連이어늘 吾人詠歌는 獨慙<sup>㉔</sup>康樂이라 幽賞이 未已에 高談이 轉淸하여 開瓊筵以坐花하고 ㉕飛羽觴而醉月하니 不有佳作이면 何伸<sup>㉖</sup>아회리오 如詩不成이면 罰依金谷酒數하리라

《古文眞寶》

주145. ㉑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46. ㉒을 국역하시오. ( )

주147. ㉓을 국역하시오. ( )

주148. ㉔이 가리키는 인물의 姓名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49. ㉕을 국역하시오. ( )

주150. ㉖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- 수고하셨습니다 -

합격자 발표: 2021. 12. 16. (목)

결과조회: 홈페이지 (www.hanja114.org) 접속 (성명, 생년월일, 수험번호 필수 기재)



# 제106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1)

## ■ 객관식 ■

1	④	6	③	11	③	16	②	21	③	26	③	31	②	36	④	41	④	46	②
2	①	7	②	12	④	17	③	22	②	27	④	32	③	37	③	42	②	47	③
3	②	8	①	13	①	18	①	23	①	28	①	33	①	38	①	43	①	48	④
4	③	9	④	14	③	19	④	24	④	29	②	34	④	39	②	44	①	49	②
5	①	10	③	15	②	20	①	25	①	30	②	35	②	40	①	45	③	50	①

## ■ 주관식 I ■

주1	돌소리 립	주21	감부기불 신	주41	채보	주61	牝→瀕	주81	快擲
주2	울짱 채	주22	뒷걸음질칠 준	주42	예취	주62	葳→菱	주82	淘汰
주3	바를 말	주23	士	주43	두간	주63	輟→徹	주83	螺旋形
주4	굽을 완	주24	言	주44	예속	주64	迢→滯	주84	倉廩
주5	짤 착	주25	勺	주45	집지	주65	葳→喘	주85	躁鬱症
주6	줄 반	주26	采	주46	구름	주66	燎火	주86	簇子
주7	핵실할/엄할 핵	주27	紮	주47	선빈	주67	庶孽	주87	龍鬚鐵
주8	숨내실 구	주28	鉏	주48	만타	주68	殄殲	주88	滲透壓
주9	두근거릴 계	주29	愆	주49	현요	주69	繭蠶	주89	慄毒
주10	동이 앙	주30	啐	주50	체상	주70	矜恤	주90	全鰵粥
주11	붉은비단/꽃을 진	주31	荻	주51	여신	주71	湮滅	주91	螂
주12	벼줄기끝 초	주32	禪	주52	잔리	주72	癥痕	주92	獐
주13	줄 형	주33	牘	주53	시휘	주73	蹇脚	주93	踞
주14	옥고리 천	주34	鈿	주54	여지	주74	攪拌	주94	彝
주15	염병 러	주35	挹	주55	예궁	주75	蝟集	주95	癰
주16	버들고리 오	주36	檉	주56	실솔	주76	搭載	주96	雛
주17	근심할 초	주37	炬	주57	跛行	주77	剛愎	주97	縻
주18	한할 오	주38	偈	주58	爬行	주78	贅辭	주98	雹
주19	구름무늬 문	주39	粲	주59	宣揚	주79	殞所	주99	臻
주20	마을 촌	주40	搨	주60	煽揚	주80	睫毛	주100	幡

# 제106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2)

## ▣ 주관식 II ▣

주101	○	주118	於，奚	주135	五言絕句
주102	○	주119	而，以	주136	한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이 (모두) 뜻밖의 불행을 당하였네
주103	○	주120	若，所	주137	鞭撻
주104	X	주121	靡，鮮	주138	苛政猛於虎/苛斂誅求
주105	山鷄野鶩	주122	繩，就	주139	赤壁
주106	井底之蛙	주123	財，道	주140	舉酒屬客
주107	逢人輒說	주124	覆，良	주141	窈窕
주108	平沙落雁	주125	不肖而不肯事賢	주142	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 서성이 더라/배회하더라.
주109	내부에서 일어난 변란. 형제들 사이의 싸움.	주126	譬若錐之處囊中	주143	물속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치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.
주110	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.	주127	多言 數窮 不如守中	주144	㉠: 보름(날), ㉡: 바라보다
주111	경망스럽고 방정맞은 사람.	주128	篤初誠美 慎終宜令	주145	逆旅
주112	음식이 아무 맛도 없음.	주129	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(잘 다스려지기보다는)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.	주146	옛사람이 촛불을 잡고 밤에 눈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었다.
주113	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.	주130	백성들이 그와 함께 망하기를 바란다면	주147	더구나 화장한 봄이 나를 아지랑이 낀 경치로 부르고
주114	백지장도 맞들면 낫다.	주131	성정이 안정되면 나물국(을 먹어)도 향기롭다네.	주148	謝靈運
주115	낮말은 새가 듣고, 밤말은 쥐가 듣는다.	주132	何	주149	술잔을 주고 받아 달 아래에서 취하니
주116	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.	주133	세속을 벗어난 자연 속의 한 가로운 삶.	주150	雅懷
주117	無，且	주134	까치 소리를 듣고 그이가 올 것이라는 기대에 화장함.		